

# 고령화시대 노인의 여가생활향상을 위한 여가정책의 방향 -노인의 여가실태에 근거하여-\*

A Study on the Leisure Policy for the Elderly in Aging Society  
-based on the actual leisure status of the elderly-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강 사 이 현 아

Dep.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 Lee, Hyun ah

## 〈목 차〉

- |                     |                         |
|---------------------|-------------------------|
| I. 서론               | V. 노인여가시설의 실태 및 문제점     |
| II. 인구고령화의 추이       | VI. 결론 및 제언: 노인여가정책의 방향 |
| III. 고령화사회 노인의 특성   | 참고문헌                    |
| IV. 노인의 여가실태 및 여가요구 |                         |

## 〈Abstract〉

Leisure is an important part of life for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ons of leisure policy for the elder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ends of aging society,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 aging society.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 of leisure life among the elderly and their needs for leisure. Finally,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public facilities for leisure and the problems in public facilities for the elderly. At th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directions of leisure policy for the elderly that enhance their leisure life quality.

**Key Words** :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노인(The elderly), 여가실태(Leisure status), 여가요구(Leisure needs), 여가정책(Leisure Policy).

---

\* 연락처자: 이현아 (leehyun@snu.ac.kr)

### I. 서론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는 절대빈곤이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양적으로 증가되어 기본적인 생리적·물질적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양적 측면에 대한 요구보다는 삶의 질적 측면에 대한 요구, 즉 문화적·정신적 욕구충족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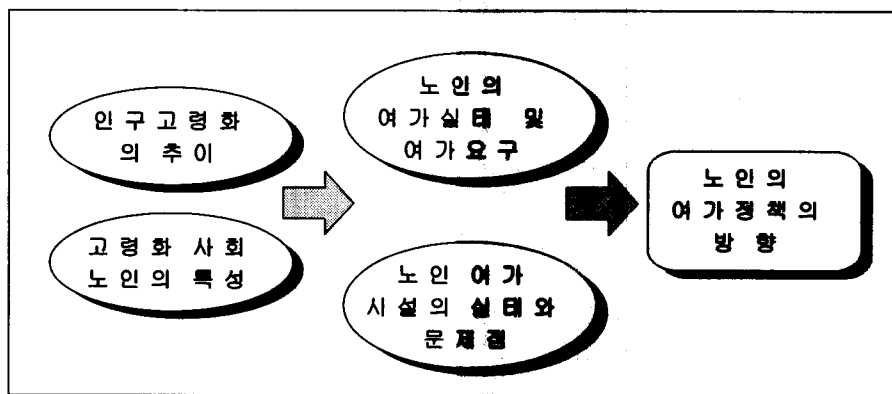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2.9%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에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여, 2003년 현재 전체인구의 8.3%가 노인인구이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65세로 진입하는 2019년경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가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고,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같이 우리사회의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여가생활의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삶의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21세기에는 노인문제도 단순한 생존이나 부양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문화적·정신적 풍요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가생활의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접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은 우리사회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구고령화의 추이와 고령화사회 노인의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생활 실태와 여가요구,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여가시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여가생활실태와 여가요구, 노인여가시설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노인의 여가생활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 II. 인구고령화의 추이

인구의 고령화는 평균수명이 연장, 그리고 노인인구비율의 증가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우선 평균수명을 <표 1>를 통해서 보면, 2000년 현재 남성은 72.1세, 여성은 79.5세로 나타나, 1960년과 비교할 때 20년이상 연장된 것이다. 2000년 이후에는 평균수명이 남녀 모두 더 연장되어 2020년에는 남성이 77.5세 여성이 84.1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 1>을 통해서 살펴보자.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3%에 지나지 않다가, 1990년 이후 5%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2000년에 7.2%로 증가하여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9년경에는 그 비율이 14.4%로 증가하여 우리사회도 머지않아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인구의 고령화를 살펴보는데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맥락은 고령화

의 진행속도이다.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것이 그 사회에 가하는 충격의 완급을 설명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앞서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쯤 되면 그 비율이 14%에 달하게 된다. 즉, 노령인구가 7%에서 14%에 이르는 기간이 우리는 겨우 19년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속도이다.

인구고령화속도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사회가 된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115년이 소요되었고, 1975년에 가장 먼저 고령사회가 된 스웨덴의 경우 85년이 걸렸다. 그 외 미국은 72년, 영국은 47년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이제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국가는 일본으로 1970년(7%)에서 1994(14%)년까지 24년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더 짧은 기간인 19년 사이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와같은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압축적 인구고령화’(정경희, 2003)라 명명하기 까지 하였다. 고령화의 속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화의 충격에 대비할 만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표 1> 평균수명과 노인인구구성비의 변화

(단위: 세)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9	2020년	2026년
평균수명									
남(세)	51.1	59.8	62.7	67.7	72.1	75.5	77.5	77.5	78.0
여(세)	53.7	66.7	69.1	75.7	79.5	82.2	84.1	84.1	84.5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2.9	3.1	3.8	5.1	7.2	10.7	14.4	15.1	20.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

<표 2> 인구고령화속도의 국제비교

국가	고령인구 비율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노르웨이		1885	1977	2021	92	44
스웨덴		1887	1972	2011	85	39
호주		1939	2012	2030	73	18
미국		1942	2014	2030	72	16
캐나다		1945	2010	2024	65	14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영국		1929	1976	2020	47	44
독일		1932	1972	2010	40	3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한국		2000	2019	2026	19	7

자료: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s』, 각년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통계청, 2003 고령자 통계, 2003.

### III. 고령화사회 노인의 특성

고령화사회에 노인은 과거의 노인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인구고령화가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를 나타낸다면, 고령화사회 노인의 특성은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질적 변화로써 노인의 특성을 가족구조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족구조적 차원

우선 가족구조적 차원에서 볼 때, 가족형태의 변화와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로 인해 고령화사회에는 노인단독가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자녀출가후 노인들끼리만 사는 노년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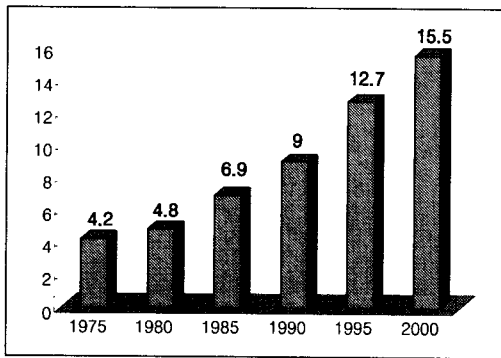
1) 가족형태변화에 의한 노인단독가구 증가  
과거에는 노인들이 3세대 확대가족 내에서

자녀들, 특히 장남과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가족형태였지만, 이제는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들끼리만 사는 노인단독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1975년 4.2%이었던 것이 2000년에 15.5%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단독가구가 일반적인 노인의 가족형태가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세대구성분포의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에 비해 2000년에는 1세대 가구 크게 증가한 반면, 3세대 이상 가구는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에 65세 이상 인구중 47.6%가 3세대가구에 거주하였던 것이 2000년에는 29.9%만이 3세대 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줄었고, 반대로 1990년에 16.9%였던 1세대가구

<그림 2> 노인단독가구의 비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연도.

의 비율이 2000년에는 28.7%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 혼자사는 노인비율이 90년에 8.9%에서 2000년에 16.2%로 거의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때, 65세 이상 노인인구중 1세대가구와 1인가구의 비율을 합하면 44.9%가 된다. 즉, 거의 반정도에 가까운 노인들이 노인들끼리 또는 노인혼자 산다는 것이다. 가족규모의 축소와 핵가족화에 따라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통계청 2003년 고령자 통계).

이와같은 3세대 확대가족의 감소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가족내 노인의 역할이 감소 또는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이전에는 확대가족 내에서 노인들이 손자녀를 돌본다거나 또는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반해, 노인들끼리만 살게되면 그러한 역할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은퇴한 노인들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가족적으로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이러한 역할상실의 문제는 노인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결국 역할상실로 인해 생기게 된 생활의 공백은 여가로 충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삶에 있어 여가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의한 노년기연장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의 변화로 인해서 자녀출가후 노인들끼리만 사는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 <표 4>에서 보면 신혼부부만의 생활기간과 자녀양육기(형성기+확대기)는 약 20년 동안 4.7년 짧아지고, 자녀결혼 완료후의 생활기간(축소완료기+해체기)은 15.1년에서 25년으로 거의 10년이 늘어났고, 배우자 사망후의 생활기간(해체기)도 6년에서 9.5년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부부 혹은 노인혼자 남는 노년기의 생활이 연장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노년기의 연장은 여가시간의 연장과도 같은 의미이므로, 노인들의 생활에 있어 여가생활의 비중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표 3> 세대별 가구구성의 변화

가구구성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1세대가구	8.3%	9.6%	10.7%	13.0%	14.2%
2세대가구	68.5%	67.0%	66.3%	63.0%	60.8%
3세대가구	16.5%	14.4%	12.2%	9.8%	8.2%
4세대가구	0.5%	0.4%	0.3%	0.2%	0.2%
1인가구	4.8%	6.9%	9.0%	12.7%	15.5%
비혈연가구	1.5%	1.7%	1.5%	1.4%	1.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연도.

<표 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각 단계의 소요기간

(단위: 년)

결혼코호트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체기
-74년	1.4	5.3	22.4	5.3	9.1	6.0
75-84년	1.3	3.3	24.4	3.3	10.7	8.6
85-94년	1.3	2.7	25.0	2.7	13.0	9.5
95-97년	0.8	1.2	26.5	1.2	15.5	9.5

자료: 김승권, '최근 출산행태 및 가족주기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1998.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25년 이상이 될 노년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개인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사회 노인의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의로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건강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1) 교육수준의 향상

현대사회에서는 대중교육이 보편화됨으로써 연령층이 낮을수록 평균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노인층의 평균 교육수준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낮은 편이나 앞으로 노인세대로 진입할 연령층의 교육수준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현재 50세 이상 국민의 평균교육년수는 6.38년(남자

8.45년, 여자 4.72년)인데 반해, 10년 후 50세 이상이 될 40-49세 연령층의 평균교육년수는 10.41년(남자11.31년, 여자 9.47년)으로 높아지고 또 20년 후 50세 이상이 될 30-39세 연령층의 평균교육년수는 12.06년(남자 12.62년, 여자 11.49년)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를 통해 이후 고령사회에 노인층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1990년과 2000년을 비교해볼때, 65세 이상 고령자중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무학의 비율이 63.7%에서 44.3%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모든 학교급별로 1990년과 대비하여 2000년에 교육수준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6)

현재 노인의 교육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8.2%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나, 고령사회에서 노년기를 맞이할 현 45-64세 연령군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약 절

<표 6> 65세이상 인구의 교육정도

(단위: %)

	교육정도별				무 학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1990	25.9	4.9	3.3	2.2	63.7
남 자	34.3	9.5	6.3	5.2	44.7
여 자	20.9	2.1	1.5	0.5	75.0
2000	33.8	8.4	8.0	5.4	44.3
남 자	36.2	14.0	14.4	12.3	23.0
여 자	32.4	4.9	4.1	1.2	57.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5> 연령에 따른 교육년수

(단위: 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평균	12.66	12.06	10.41	6.38
남성	12.67	11.49	9.47	4.72
여성	12.65	12.62	11.31	8.45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반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초고령사회의 노인들이 될 현 35-44세 연령군의 경우 70-80%가 고등학교 학력을 갖고 있고, 대학교 이상 학력소지자도 20%내외에 달하고 있다(정경희, 2003).

이처럼 향후 고령사회나 초고령사회의 노인들이 현 세대노인들과 달리 교육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질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또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기반도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성희와 김성희(1997)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고, 자산과 월평균소득이 많은 노인이 보다 적극적인 여가태도를 보이며,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수준의 증가로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는 만큼, '여가'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함께 증대할 것이므로, 고령화사회 노인의 생활에 있어 여가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 2) 소득수준의 향상

현재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의 약 30% 정도가 최저생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시행되어 20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혜택이 현재 노인층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연금제도가 있어 5년이상 가입하여 60세에 달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액수는 매우 적어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기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조성남 외 2인, 1998)

현 노인세대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정립되지 못한 시기에 청장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제적인 노후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라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1998)에 의하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층의 22.6%만이 노후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내용별로는 공적연금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3.9%, 사적연금 3.8%로 연금을 통한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대신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한 경우가 13.7%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재 노인세대의 노후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고,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사회보험을 통한다고 보다는 개인적인 저축을 통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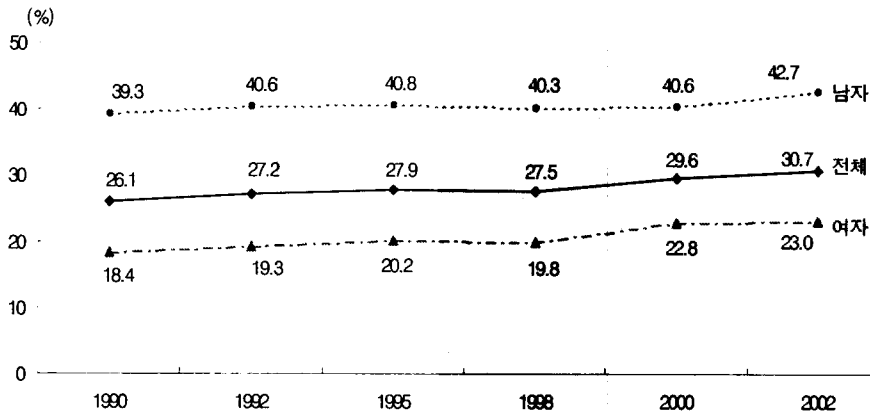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현재 45-64세 연령군은 40%정도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 세대의 노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적 연금이나 사적연금 등 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의 비율이 10%- 20%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아, 현 세대노인보다 소득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실태 전망을 보면, 2002년 현재는 공적 연금수급자가 60세 이상 인구의 20.5%에 불과하지만, 2019년에는 51.6%가, 2026년에는 60.9%가 공적 연금수급자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센터, 2000 ; 정경희, 2003에서 재인용)

한편,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 또한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구매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2년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7%로 90년의 26.1%에 비해 4.6%나 증가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 노인이 될 사람들은 노후의 경제적 생활에 대해 미리부터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고 실제 각종 연금이나 저축, 자산축적 등을 통해서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

<그림 3>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연도.

하고 있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실시한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 및 준비실태조사’(1995)에 따르면 응답자의 95.3%가 노후생활의 부양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노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같은 조사에서 취미생활과 여가비용 등이 포함되는 ‘문화교양비’ 항목이 가장 지출 비중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향유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21세기에는 구매 능력과 건강이 확보된 노인층이 증가하여 레저시설이용이나 여행을 중심으로 한 여가문화가 확산될 것이라 전망해 볼 수 있다(이기춘, 여정성, 1996).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버산업의 팽창 또한 경제력을 가진 노인집단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노인의 여가실태 및 여가요구

##### 1. 노인의 여가실태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들은 가정 내에서는 전통적 규범과 생활양식의 전수, 개인상담, 손자녀 교육, 집안대소사 등을 도맡아서 주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대가족제도가 핵가족제도로 바뀌면서 가정생활도 부부 또는 자녀중심으로 되어가고 있고, 집안일도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편리화되면서 특히 노인의 도움이 덜 필요하게 되었다(박재간 외, 1996).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인층은 청장년층에 비해 여러면에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노동 시장에서 취업경쟁력이 약하다. 그래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정년퇴직을 하게되어 직업적, 사회적 역할마저 상실하게 된다.

노인이 가정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노인은 매일매일 생활을 여가로 채울 수밖에 없다. 즉, 노인들의 생활은 그 자체가 여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년기에 여가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고 가치있게 보내느냐가 노년기 역할상실감을 완화시키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즉, 여가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내느냐가 바로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추적 요인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생활실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많은 조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체로 라디오청취와 TV 시청, 집안일, 손자녀돌보기 등 가정내에서 혼자 소일하거나 친척, 친구방문 등 단순모임이나 화투, 장기, 바둑 등 소극적으로 여가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에서 전국규모로 실시한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에서도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94.7%)가 일반적인 노인의 여가활동으로 나타났고, 그 외 신문, 책보기(26.5%), 종교활동(26.0%), 친구나 친척모임(21.6%), 정원손질(14.1%), 운동 및 등산(13.6%), 화투, 장기, 바둑(13.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2000)에서도 60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활용방법은 주로 휴식수면(63.1%), TV시청(61%), 가사잡일(43.3%), 사교관련(26.7%), 가족과 함께(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적극적 의미의 여가활용방법인 여행(9.2%), 스포츠(2.8%), 창작취미활동(1.4%) 등은 매우 저조한 응답율을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에서 실시한 노인여가활동실태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조사(2000)를 통해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하루 여가시간은 평균 5시간49분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양적으로 여가시간의 비중이 큰 편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때, 노인들의 여가시간은 주로 TV 시청(3시간 19분)이 대부분이며, 그 외 가족 및 친구 등과의 교체(1시간 13분), 쉬기(55분), 운동(32분), 놀이(16분) 등으로 소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생활시간자료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가 대부분 TV시청이나 쉬기와 같은 소극적 여가로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0세이상 노인의 여가활동시간을 분석한 박미석과 이유리(2003)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여가활동을 사회봉사활동, 사교오락활동, 대중매체이용, 자기개발활동, 종교활동, 문화관람활동, 스포츠 및 레저활동, 단순휴식으로 유형화하여 노인들의 생활시간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대중매체이용이 3시간 13분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사교오락활동(1시간22분), 단순휴식(49분), 운동 및 레저활동(29분), 종교활동(16분), 자기개발활동(6분), 사회봉사활동(5분), 문화관람활동(2분)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65세 이상 노인의 하루 평균 생활시간

단위(시간: 분)

구분	개인 유지				일	가사	교제	여가	여가				이동	기타	계
	밤잠	낮잠	건강 관리	TV					운동 레저	놀이	쉬기				
65세이상	11:19	7:46	0:45	0:33	2:08	2:12	1:13	5:49	3:19	0:32	0:16	0:55	1:03	0:16	24:00
남자	11:20	7:42	0:44	0:31	2:37	0:54	1:09	6:29	3:39	0:45	0:22	0:47	1:16	0:15	24:00
여자	11:18	7:49	0:45	0:34	1:48	3:06	1:16	5:21	3:06	0:22	0:13	1:01	0:55	0:17	24:00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2000.

한편 부산시 노인복지실태 및 욕구조사(2002)의 조사결과에서도 노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여가활동은 '라디오 청취·TV 시청과 같은 소일형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지배적인 여가활동 방식은 '가족, 친구, 이웃과의 만남'이었고, '놀이·오락(장기, 바둑, 화투)', '종교 활동'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프로그램이나 사회봉사활동, 정치활동에의 참여는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TV시청이나 사교, 휴식 등이 대부분으로 매우 소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자기개발이나 운동, 문화활동, 사회봉사 등 진정한 의미의 여가생활을 즐기기보다는 단지 하루하루 시간을 소일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가 노년기 역할상실감을 완화시키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생활실태를 통해 나타난 여가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여가라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2. 노인의 여가요구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노인들의 여가생활실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질적으로 다양하지 못하고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미래 노인이 될 중년층의 여가에 대한 요구는 매우 다양하며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될 2020년경에 노인이 될 현재 중년층의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와 선호를 살펴보면, 현재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또 미래 노인들의 여가생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현재 중년층의 여가에 대한 요구를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50대 중상층을 대상으로 한 조성남 외 2인의 연구(1998)에서 노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여가활동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여가활동의 분야에서 참여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취미, 문화, 스포츠활동에 대한 요구와 가족모임이나 친구이웃모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여가활동의 참여희망도를 4점 척도를 측

<표 8> 노후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

(단위: %)

참가유형	문항	적극참여	가끔참여	거의 참여안함	전혀 참여안함	평균점수
취미/ 문화/ 운동	취미활동	52.7	44.1	2.7	0.5	3.49
	문화활동	20.1	62.8	15.1	2.1	3.01
	스포츠활동	62.0	35.3	2.5	0.2	3.59
가족 모임	가족모임, 여행	49.9	48.1	1.4	0.7	3.47
	친구·이웃모임	42.4	52.6	4.1	0.9	3.37
	경로당, 노인회관 등에 참여	9.3	40.5	37.4	12.8	2.46
사회단체 활동	학습활동	17.2	51.6	23.8	7.5	2.78
	종교활동	30.2	37.9	22.4	9.5	2.89
	사회봉사활동	22.6	58.6	16.1	2.7	3.01

자료: 조성남 외 2인, 고령화사회와 중상층노인의 사회활동, 1998.

정한 결과, 스포츠활동에 대한 참여희망도가 3.5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취미활동 3.49점, 친구나 이웃모임 3.37점으로 비교적 참여희망도가 높았다. 한편 사회봉사활동과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모두 3.01점으로 중간정도의 선호도를 보였다. 학습활동에 대한 욕구는 2.79점으로 다른 여가유형에 비해 덜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노인 학교나 노인대학의 학습프로그램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회관, 노인종합복지관의 참여에 대한 선호도 2.46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 또한 현재 노인 여가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노인층이 즐기는 여가활동의 분야가 제한적이며 참여정도에 있어서도 매우 저조한데 반해, 미래의 노인층인 현재 50대 층은 노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가활동분야가 다양하고, 참여희망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후시기에 여가

활동의 적극적 참가양상은 은퇴로 인해 변화된 생활환경에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조성남 외, 1998).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교육수준, 경제적 상태 및 여가에 대한 사회화의 정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노인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지니고 있으며, 청장년기시에 여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성연, 박미석(2000)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고, 여가정보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여가욕구수준이 높고, 여가활동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의 향상이 노인들의 여가요구와 여가활동의 증대로 연결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노인층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는 21세기에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표 9> 우리나라 노인여가시설의 현황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대상자	시설수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60세이상의 자	123개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이상의 자	46,589개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60세이상의 자	642개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4개

자료: 보건복지부(2003), 노인복지시설현황.

## V. 노인여가시설의 실태 및 문제점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여가시설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노인여가시설의 설치목적과 입소대상자, 시설수는 <표 9>와 같다. 이하에서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노인여가시설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 1. 경로당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통계(2003)에 의하면 이러한 경로당이 2003년 현재 전국 46,589개가 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만남의 장소이며, 놀이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다.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2002)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의 주된 여가장소가 '경로당'(77.7%), '기타'(68.7%), '이웃집'(53.1%), '지역사회복지관'(28.2%) 순으로 나타나 경로당이 노인들의 여가장소로 가장 쉽고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노인상호간의 친목과 화합,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각종 놀이, 즉, 장기, 바둑, 화투 등을 즐기며 하루를 소일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경로당은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거나 시설자체가 가건물 형태인 점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일정한 프로그램 없이 화투, 장기, 바둑 등의 오락으로 시간을 때우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다.(조성남 외, 1998).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사업지침을 통해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을 교양강좌, 취미활동, 봉사활동, 건강활동, 자체수업조성, 훈장적 역할, 기타 등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전문가의 도움없이 비조직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로당에서 노인들은 모여서 대화하고, 장기나 바둑, 화투놀이를 하거나, 남이 노는 것을 구경하거나, 라디오나 TV를 시청하는 등 단지 시간을 소일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경로당의 운영비 조달방법은 경로당 자체기금, 회비, 정부보조금, 찬조금 등이 있다. 2003년 현재 정부에서는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난방연료비를 개소당 연간 연간 30만원 및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의 운영비로 월 4만4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03), 이 정도로 경로당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경로당은 시설노후, 운영비 부족, 프로그램 부재 및 전문적 프로그램 운영자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다양한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설설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일부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로당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들과 연계하여 지역노인을 위한 사랑방 또는 보건복지정보센터의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양근, 1997).

## 2. 노인교실

노인교실의 설립목적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활동, 노후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교실은 1972년 종로 태화관의 '서울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1970년대 후반 및 1980년대에 급속히 설립되어, 2003년 현재 전국 642개소가 등록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3). 노인교실은 주로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서울시의 경우 정식 등록된 노인교실에 한해 월 10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현재 노인교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프로그램과 여가활동프로그램 등으로 나뉜다. 교육프로그램은 학습내용이 주로 노인들이 원하는 강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유지나 학장의 간단한 강의와 학예회 위주의 경로잔치 수준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일부 노인교실의 경우 교양강의는 거의 없고, 취미, 오락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성남외, 1998).

서울시 노인교실 운영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선희, 1997)에 따르면 현재 노인교실은 운영자들의 비전문성, 시설의 낙후 및 영세성, 춤과 노래 등 놀이위주의 프로그램, 전문강사진 확보의 어려움, 운영재원의 부족, 교육시설, 교재 및 교육방법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자 전문교육, 충분한 재정지원, 전문성을 지닌 강사진의 확보,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노인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은 경제적인 여유 또는 가정에서의 이해와

지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노인이 아닌 일부 노인계층만이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단점도 있다(박재간, 1997).

노인교실은 노인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며 또한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용방법을 개발시킨다는 점에서 노인여가시설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나 실제 전문적 운영자와 강사진의 부족,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불충분한 운영재정, 교육시설 및 교재의 미비 등의 문제로, 노인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여가시설로서의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육,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시설규정은 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넘어서고 있다. 명칭에 있어서도 노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관, 노인과학관, 노인복지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은 1989년 이후 설치 운영되기 시작하여, 2003년 현재 전국 1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불우노인일시보호,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교육, 노인부업실 운영, 노인가정봉사원 파견, 노인교육운영, 의료재활사업실시, 노인편의시설 제공사업, 경로식당, 노인취미능력개발 및 활용, 노인능력은행, 노인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육성 및 활용, 재가노인봉사사업, 지역주민사업, 기

타 부대사업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연구보고서에 서는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상담사업, 취업알선, 기능회복, 복리후생, 지역복지협력, 교양강좌, 재가복지사업, 보호사업, 경로당연계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그 관리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중 노인들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교양강좌인데, 그 속에는 교양교실, 건강교육, 정보화교실, 취미여가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와같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상담사업, 취업알선, 의료사업, 재가보호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교육 프로그램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은 미비한 상태이다(조성남 외, 1998).

노인복지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2002)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관 이용도가 노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강한 노인보다는 건강이 나쁜 노인이 지역사회복지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또 가구소득이 낮고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이용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반증해주는 것이다. 즉,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수준이 일반 노인들의 여가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뿐만아니라, 노인사회교육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학습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인 진행에 그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전문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적인 질적 접근보다

는 양적 접근, 전시행정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보조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 또는 비영리단체에 의한 활동영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조성남, 1998).

그 외에도 노인복지회관 운영상 어려움으로 노인복지회관 수의 부족, 예산부족, 프로그램의 부적절성, 부적절한 위탁법인의 선정, 이용계층의 편중, 직원자질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이제까지 우리나라 노인여가시설의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여가시설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의 낙후 및 공간부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경로당과 노인교실 모두 그 시설이 낙후되고 영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노인여가프로그램의 문제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여가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양오락강좌나 건강강좌에 머물고 있어, 다양한 노인의 여가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시대에 한층 높아진 노인의 여가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노인여가시설을 운영하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재원의 부족이 결국 시설노후와 프로그램 미비로 연결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 노인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적 관리자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경로당에서는 단순히 소일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여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교실과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양교육과 여가프로그램은 단순하고, 비전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우리나라 노인여가정책의 대

상 편중화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노인여가시설 이용자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여가시설의 수준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지금은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하면서 보다 다양한 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가시설의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노인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노인여가시설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은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 평가할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노인 여가정책의 방향

이제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인구고령화의 추이와 고령화사회의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고, 노인의 여가생활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리고 고령화시대 노인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노인의 여가실태와 여가요구가 어떠한지, 또 현재 우리나라 노인 여가시설의 실태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앞서 본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향후 노인 여가정책의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여가요구와 여가기능개발을 위한 여가교육, 둘째, 노인여가시설의 확충, 셋째, 여가수요조사 및 프로그램개발, 넷째, 노인여가관리전문가 양성을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여가정책의 방향으로 제안한다.

### 1. 여가요구와 기능개발을 위한 여가교육실시

우리나라 노인들은 지난날 빈곤사회에서 청장년기를 보낸 탓에 노동만이 인간생활의

최고가치라 생각하고, 여가는 부자나 권력있는 특권계층이나 즐기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고령화사회에 돌입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이 곧 여가생활인 지금까지도 여가에 대한 가치관은 종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여가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시키고, 이들의 진정한 여가욕구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여가교육이 필요하다. 여가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몰랐던 자신의 여가욕구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새롭게 삶의 의욕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한편 지금의 노인들은 젊었을 때부터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이를 실행할 만한 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 여가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기술, 지식 등이 요구된다. 노인이 되어서야 어떤 여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그 여가활동을 즐기려고 하나, 사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후에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시절부터 많은 여가경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인구고령화의 경험을 빨리한 일본의 경우, ‘여가력(餘暇歷)’의 개념을 통해 청장년기 여가가 노년기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여가개발센터가 실시한 ‘노인의 여가생활조사’ 결과, 노인의 여가유형이 ‘여가지속파’, ‘여가재개파’, ‘여가신규개시파’로 나뉜다. 즉, 젊은 시절부터 연속해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여가지속파와, 젊은 시절에 여가활동의 경험이 있지만 생활이 바빠서 일시중지하고 고령기가 되어 다시 시작한 여가재개파, 고령기에 처음으로 여가활동을 시작한 여가신규개시파로 나뉘는데, 이중 ‘여가지속파’와 ‘여가재개파’는 능동적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여가신규개시파’는

수동적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과거에 경험한 취미나 오락 등의 여가경험이 노년기에도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노인이 되고나서 처음으로 여가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수동적이고 소득다소비형 여가활동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이찌반가세, 1994).

우리나라의 연구결과(김명자, 1993; 박상철, 1997)에서도 중장년기 여가경험이 노년기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노인에 대한 여가교육 못지않게 중장년기의 여가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사회의 공교육은 직업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데 치중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여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성인교육이나 기업 또는 사회단체의 교육을 통해서 여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젊어서부터 자신에게 적합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2. 노인여가시설의 확충

우선 노인의 여가생활의 충실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노인여가시설을 양적으로 확충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인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이 있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경우 시설이 낙후되고 미비한 점이 많아 날로 증가하는 노인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무니없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노인여가시설을 설립하여 양적으로 노

인여가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설의 확충은 모두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노인시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3. 여가수요조사와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개발

노인의 여가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여가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도 적합한 여가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인의 여가수요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통해 다양한 노인의 여가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고령사회에는 교육수준도 높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층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을 소일하는 형태의 여가로는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높아진 요구수준과 더욱 다양해진 요구형태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또는 관련 연구소 및 사회단체간의 유기적인 연구체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노인여가개발센터'를 설립하여 노인의 여가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 4. 노인여가관리전문가 양성

노인여가시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인여가관리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앞서 여가시설의 확충은 여가시설 자체에 대한 문제라 한다면, 노인여가관리전문가 양성은 여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노인교실과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비전문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노인여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노인여가관리전문가는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역할 뿐 아니라, 노인에게 여가에 대한 정보와 기능을 전달해주고, 또 노인의 제반 문제까지도 상담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여가관리전문가는 인격적, 교양적, 관리적 자질을 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질을 갖춘 노인여가관리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대학내 관련학과와 노인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여가관리전문가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참 고 문 헌】

- 1) 고양곤(1997), 노인복지실태와 정책과제, 노인복지제도 입법방향에 관한 공청회, 국회 노인복지연구회 제 2회 세미나 자료.
- 2) 김명자(1993), 여가활동과 행복한 노후생활의 향유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 3) 김성연, 박미석(2000), 도시노인의 여가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 4) 김승권(1998), 최근 출산행태 및 가족주기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8호.
- 5) 모선희(1997), 노인교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 제8회 노인복지학술대회, 노인여가시설운영.
- 6) 박미석, 이유리(2003), 한국노인의 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 7) 박상철(1997), 중장년기 여가경험과 노년기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8) 박재간(1997),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제5호.
- 9) 박재간, 모선희, 원영희(1996),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노인복지정책연구, 제4호.
- 10) 보건복지부(1997), 노인복지사업지침
- 11) 보건복지부(1998), 노인복지사업지침
- 12) 보건복지부(2003), 2003년도 노인복지사업안내.
- 13) 보건복지부(2003), 노인복지시설현황.
- 14)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2002), 2002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 15) 이기춘, 여정성(1996), "고령화사회의 노년기 경제생활문제와 그 대책", 고령화시대와 삶의 질,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 16)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5), 노후생활에 관한 의식 및 준비실태 조사.
- 17) 정경희(2003), 고령화시대의 노인보건복지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집.
- 18) 조성남, 이동원, 원영희 공저(1998), 고령화사회와 중상층 노인의 사회활동, 집문당.
- 19)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1996.
- 20)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2001.
- 2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연도
- 2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연도
- 23) 통계청(1998), 사회통계조사 1998.
- 24) 통계청(2000), 사회통계조사 2000.
- 25) 통계청(2003), 2003년 고령자통계.
- 26) 통계청(2000),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 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29) 홍성희, 김성희(1997),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권 4호.
- 30) 이찌반가세 외 2인(1994), 餘暇生活論, 有斐閣.